원인 모를 숫사슴 폐사, 초기 진료가 중요

- 정확한 원인 불규명, 효과있는 치료제는 발견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2001년 10월은 빨리 갔으면 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9월 초순부터 충남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슴의 질병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겪지도 못한 질병으로 주로 나이 먹은 엘크 수컷에서 발생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하루 이틀 먹지 아니하고 약간 귀가 쳐지며 오줌을 많이 누면서 흰 거품이 일어나며 맑은 침과 맑은 콧물이 흐르면서 활기가 없고 아니면 자주 드러눕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상태라면 '번식계절이어서 잘 먹지 아니하거니', '교배로 지쳤거니', '좀 컨디션이 안 좋거니' 하고 여기기 일쑤다. 매년 가을이면 '당연히 그러려니' 했으니 말이다.

위와 같은 상태가 하루나 반나절 지나면 한쪽 발을 절고 다시 하루나 반나절이 지나면 2~3개의 발을 심하게 절면서 호흡이 빨라진다. 또한 열이나서 물통에는 자주 입을 대지만 마시는 양은 소량이며 조사료나 배합사료는 먹지를 아니한다. 대변은 거의 배설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고, 또는 뭉쳐진 주먹똥을 배설하는데 주먹똥에는 장점액이 많이 섞여 있다. 심한 냄새가 나고 어찌 보면 장독혈증 증세와 비슷하기도 하고 감기나 호흡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하며, 부제병이 급속으로 발생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위의 장독혈증도, 감기나 부제병도 아니다. 더욱이 먹이를 먹지 아니하고 폐사에 이르는 시간이 보통 3일, 길어야 5일이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폐사된 사슴

치료하기도 여간 고약한게 아니다. 우선 폐사율이 높으니 섣불리 치료하기가 어렵고 특히 초기나 중기의 질병 진행상황에서도 마취는 금물이었다. 마취를 한 경우 치료결과는 거의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이칸이나 크러쉬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슴사육 농가는 몰이칸이나 크러쉬가 없어 파이프와 크립을 사용하여 간이 몰이장을 급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간도 걸리고 사슴에 의한 부상위험도 높아 여간 고욕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것이 현실인 것을...

걸음걸이가 크게 흔들리거나 움직임 자체가 어려운 사슴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다. 사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폐사를 각오하고 쓸 수 있는 항생제와 영양제, 설파제를 써 보지만, 즉 '혹시나 하고' 진료를 해 보지만 결과는 역시나 폐사였다. 다만 초기나 중기에 엔로후록사신, 해열제, 설파제를 주사하고 영양제를 써 준 사슴은 회복율이 높았다. 특히 설파제를 주사하고 동시에 썰파디메칠피리미딘 제제를 먹여준 사슴은 대체로 회복율이 높았다.

한편 진료를 의뢰하는 사슴목장은 대개가 1~2마리가 폐사된 뒤에 다른 사슴이 발병하면 즉시 치료를 위해 왕진을 요청하였으나 처음 발생된 사슴사육농가에서는 질병상태가 거의 말기에 이른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아니면 이웃의 목장에서 폐사된 것을 알고 연락이 오거나였다. 그러다 보니 질병에 관한 설명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진료를 시작한 초기에는 어떤 약제가 효과가 있는지 몰라 애를 먹었다. 테라마이신제제, 페니실린제제, 세파마이신제제는 효과가 없었고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대학쪽에 알아보고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구하는 이에게는 해답이 나오기 마련인가 보다. 지금까지 질병이 발생했던 목장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엔로후록사신이나 틸리노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금년 봄에 필자가 시행한 기생충 검사결과와의 대조를 통해 기생충 감염과 연관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즉 콕시듐이 감염된 사슴에서 발생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설파제를 투여하였으나 무슨 약리 작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설파디메칠피리미딘 제제를 사용한 개체에서 효과가 두드러짐도 알게 되었다.

해열 진통 소염제는 대증요법의 요령으로 채택되었다. 더 나아가 예방약이 무엇일까를 궁리하던 중 설파디메칠피리미딘을 성록 숫사슴 기준으로 하루 간격으로 3회 음수 투여한 결과 지금까지 본 병이 발생하였던 사슴목장에서는 발생이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간혹 한두마리 발생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했다. 이에 용기를 얻어 필자의 시험목장에서 음수로 50여두에게 투여한 바 투여 이후에는 더 이상의 폐사는 없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친분이 두터운 목장에 사용을 권장한 결과 매우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생겼다. 많은 사슴사육농가에 설파디메칠피리미딘을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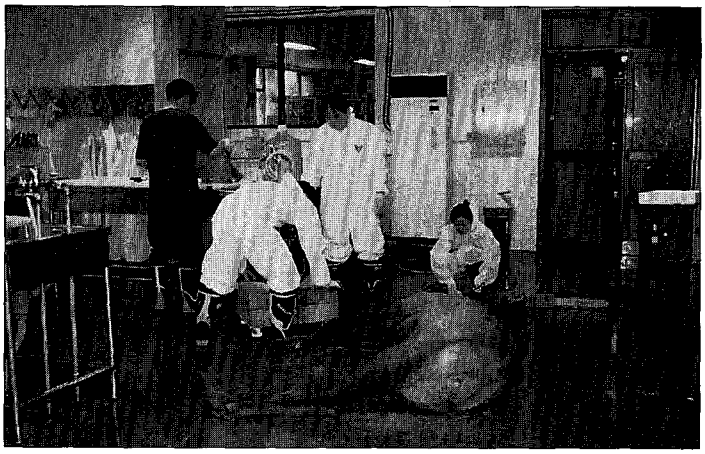
주고 싶었으나 말 많고 탈 많은 사슴업계여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약장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사슴진료 특성상 잔매를 많이 당해 본 필자로서는 하는 수 없이 사슴관련 친목회에서 설파디메칠피리미딘을 권장해 주었고 전폭적인 사용결과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금도 모두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왜 주로 숫사슴에서 발생하고 어린 사슴이나 암사슴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파방법도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왜 테라마이신이나 페니실린, 타도마이신, 세파마이신은 효과가 없고 엔로후록사신이나 틸리노신에만 치료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언제까지 발병이 지속될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약제의 감수성으로 볼 때 마이코프라즈마나 파스튜렐라의 합병에 콕시듐 감염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11월초까지도 충청남도를 비롯해 전주, 광주, 충주, 대구, 원주, 남양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10월말 이후에는 꽃사슴에서도 발생되고 있어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된 (괴질)병에 접하면서 사슴사육농가에서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 작은 숫자의 사육자들은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병성감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육농가에서는 질병 원인 규명보다는 중탕 내리기에 급급했고 아니면 업자에게 판매해 버리는 바람에 사슴육 값은 더더욱 곤두박질했고 냉동고가 없어 난리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수의검역원쪽에서도 폐사된 사슴을 병성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운반비를 축주가 부담하여 가져오라니 사슴 죽어 속상한 판에 어느 누가 운반비까지 책임지며 가져다줄까?



▲부검을 진행중인 수의과학 검역원

지금 많은 사슴사육 농가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앓고 있다. 빨리 질병원인을 알아야겠다. 콕시듐 감염증(신경성), 비타민E 결핍, 셀레늄 결핍, 장독혈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규명이 없어 우리 모두가 답답하다. 또한 다른 질병과의 구별방법도 알아내야겠는데...

하지만 불행중 다행인 것은 치료요령은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국양록

〈필자 연락처 011-423-5297〉